

광주 자치구 산하 첫 출연기관 탄생한다

‘남구푸드센터’ 市 심의 통과 진월테니스장 주차장 부지에 내년 4~5월 1호점 개장 농산물 생산·유통 등 전담

농산물 유통산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능 이외에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5년간 매출액은 45억여원으로 예상하며 3억여원 가량의 예상 적자는 출연형식으로 지원한다. 운영 5년 뒤인 2021년부터는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남구 진월국제테니스장 옥외 주차장 부지에 20억원을 들여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남구는 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5000만원을 내고, 직매장 건립 비용은 지난 2014년 지역발전위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받은 26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직매장에서는 남구 대촌동, 나주·화순에서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을 전시 판매

한다.

남구 관계자는 “이의 창출이 아닌 농업인 환원사업,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적정 가격에 공급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주민 건강 증진, 지역 경제의 건전한 순환이라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자치구 산하에 첫 출연기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8일 남구 산하에 재단법인 광주남구푸드센터를 설립하는 협의안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설립재원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출연기관은 광주문화재단 등 17곳이 있지만, 자치구는 남구가 첫 사례라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특히 출연기관 역할이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등을 맡는 것은 일선 자치구에선 드문 일이다.

자치구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시 조례안 입법 예고 전에 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는 최근 푸드센터에 대해 사업 적정성, 설립 타당성, 지역의 경우 상용성 등을 평가, 설립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협의를 보면 남구는 오는 11월까지 조례 제정을 마친 뒤 푸드센터 발기인 창립 총회, 법인등기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내년 4~5월께 직매장 1호점을 개장하고 1호점이 안착할 경우 2018년에 2호점을 열 계획이다. 직매장 운영을 위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14명을 둔다.



장애인 제수용품 나누기 행사 '추석맞이 장애인 한마음 나누기 행사'가 8일 광주 북구 각화동 장애인복지회에서 열렸다.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중증장애인 800세대에 전달할 제수용품을 포장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하남산단 외곽도로 장수IC~발산교 임시 개통

12일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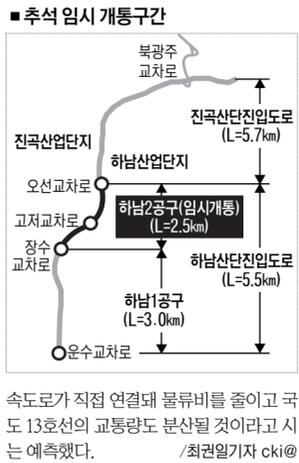
광주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 일부가 우선 개통된다.

광주시는 추석 귀성객 교통편의를 위해 하남산단 외곽도로 가운데 장수IC~발산교 2.5km 구간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8일 밝혔다.

하남산단 외곽도로는 진곡산단 진입도로 중점인 하남산단 6번로-무안광주 고속도로 운수교차로까지 5.5km, 폭 20m, 왕복 4차로로 조성된다.

총사업비 1715억원(국비 50%)을 들여 2009년 6월 공사에 착수해 2017년 준공 예정이다.

이 도로는 공사비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개설되는 혼합도로 개선사업 중 하나다. 이번 개통으로 진곡·하남산단과 호남고



전남도의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토론회 개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8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엔 임명규 의장을 포함한 이창호·전정철 의원과 공사·계약담당 공무원, 종합·전문건설업체 대표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영덕 박사는 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지자체 투자 자원 확보방안 모색 등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 연구위원은 “건전한 하도급 거래 문화조성을 위해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자담보 책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자발생의 원인에 대한 판정기준 마련 및 판정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남지역 건설업체 주도로 기획건설시장 개척과 농어촌 미니복합개발사업 진출 및 신소재,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산하종합기술(주) 최인준 대표는 “용역 발주시 지역용역사의 참여 기회 확대와 설계용역 PQ 평가제도의 기술자 경력·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완화 등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태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은 “이날 많은 의견이 제시됐는데, 중앙이 건의할 사항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전남도가 실천할 사항은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조례 제·개정이나 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 하락 광주여성재단·광주신보재단 ‘A등급’

경제고용진흥원 등 8곳 ‘B’ 여성재단, 기관장 평가 1위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가 지난해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10곳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한 결과 광주여성재단과 광주신보재단 등 2곳만이 A등급을, 나머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 8곳은 B등급에 그쳤다.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 이상 S등급에서 10점 단위로 5개 등급으로 나뉘며 D등급(매우 미흡)은 60점 이하다. A등급(우수)은 80점 이상, B등급(보통)은 70점 이상, C등급(미흡)은 60점 이상이다. 매우 우수를 나타내는 S등급은 한 곳도 없다.

세부적 점수로는 광주여성재단이 84.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은 73.33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경영성과는 A등급이 3곳, B등급 6곳, C등급 1곳이다. 특히 지난해 A등급이었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여성방송, 광주과학기술협력센터는 모두 B등급으로 밀렸다. 반면에 C등급

이었던 광주신보재단과 B등급인 광주여성재단은 A등급으로 올랐다.

여성재단은 경영혁신 수요 발굴 및 프로젝트 구축을 통해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신보재단은 중소기업 혁신지원 보증펀드 협약·보증시행을 통해 사업성과를 개선해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도입, 시행한 기관장 평가는 여성재단이 84.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보재단이 84.02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A등급 기관장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81.71점), 광주문화재단(80.67점)이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70.82점으로 가장 낮은 등 7곳이 B등급을 받았다. 평균 점수는 77.99점이다.

이번 경영평가 지표 배점은 경영성과 60점, 경영시스템 30점, 리더십·전략 10점 등이다.

시 산하 17개 출연기관 중 다른 곳에서 평가하는 기관(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전남연구원), 행정부 고시(광주비엔날레), 결산기간 1년 미만(광주복지재단) 등 7곳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평동산단 외국인투자기업 금정공업 제2공장 착공

테마크 그린포스 계열사 합병 700~800억 매출 증대 기대

광주시는 평동산단에 있는 100% 외국 투자기업인 금정공업(주)(대표 제순알란)이 8일 제2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착공된 2공장이 내년 준공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5배 이상의 매출액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와 2008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평동산단에 입주한 금정공업은 세계가 인정한 우수품질의 수중펌프 개발로 지난 2013년 500만 달러, 2014년 10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는 등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 연간 매출 120억원 정도로, 생산제품 대부분을 러시아와 중국,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금정공업의 모기업으로 테마크에 분사를 둔 그린포스(Grundfos)는 한국 계열사인 3개사(한국그린포스퍼프스, 청석, 금정공업)의 합병을 결정하고 향후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해 한국시장에서 통합 자산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금정공업 제순 알란 대표는 “제2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광주공장 매출이 700억~8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42명인 근무인력도 11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1세부터 52세까지...광주시 공무원 8~9급 합격자 발표

광주시는 지난 6월 시행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8·9급) 최종합격자 8명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264명 모집에 8085명이 응시해 평균 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5009명(응시율 61.9%)이 필기시험에 응시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268명이 선발됐다.

합격자 직렬별로는 행정 168명, 시설 48명, 공업 15명, 전산 8명, 기타 29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30명(48.5%), 여자가 138명(51.5%)이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60.6%에서 9.1%포인트 떨어졌다. 최연소 합격자(21세)와 최고령 합격자(52세)의 연령 차이는 무려 31세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남관리지역 (낮은 야산) 급 매

문내면 석교리 **5300P**

P당 2만5천원
폭6m 현충도로 있음

목포 생활권
해남기업도시 인접

향후 태양광-귀농을 위한 최고의 토지임

태양광 발, 과수원 주택, 축사 사료공장 창고 일반공장 퇴비공장 등 모두 가능

문의전화(지주) 010-7979-8257

완전 파격 상가 임대

나주혁신도시 호수공원인접 신축상가

-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과 부영아파트 인접
- 상업지역으로 시비권없음
- 6층건물중 3층 3칸 (약200평)
- 사무실, 식당, 노래방등 전업가능
- 월임대료 1년간 무료.

문의전화 010-3782-7360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레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 250평 토지 10평 ▶ 감정가 21억3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양동 건물 455평 대지 175평 숙박시설 방 40개 지하층~지상 5층 ▶ 감정가 11억 최저가 6억 (감정가의 45%)
- 광산구 신항동 신축 3층원룸건물 108평 대지 70평 방 11개 수문, 신장중인근 위치 및 건물확장 ▶ 감정가 14억7천 최저가 13억7천
- 서구 쌍촌동 2층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 40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 토지, 병원, 사옥, 창고부지 매매상당

- 남구 봉선동 모아아파트인근 1층근린상가 건물 65평 대지 157평 투자적합 ▶ 감정가 6억5천만원 최저가 6억5천만원
- 서구 치평동 6층근린시설 세정아울렛인근 건물 260평 토지 66평, 상권중음, 커피전문점음영중 ▶ 최저가 9억5천만원
- 동구 동명동 3층근린주택(상가+주택) 아시아문화전당부근 건물 90평 토지 47평 건물상대중음 ▶ 최저가 2억3천만원
- 영암군 시종면 근린시설 9층건물 906평 대지 209평 주차장있음 면사무소인근 계획관리지역 ▶ 감정가 8억9천 최저가 3억2천만원

★ **급매** 광산구 하남3지구 38차선 대로접 상업지역 대지 132평 전면널음, 상권확장 프랜차이즈상당함영 ▶ 거래가 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제2순환도로변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방음터널)공사 시행

제2순환도로 매월동 방음터널 설치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구 간 ▶
제2순환도로 매월동 동산교차로~서광주역 사거리 (구간별 순차적 교통통제 예정)

◀ 공사기간 ▶
2016년 9월 ~ 2017년 1월

매월동 아델리움 & 로제비앙 아파트 현장